

코스피	코스닥
2554.69	847.72
(-12.76)	(-7.7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480	1326.00
(+0.102)	(+8.60)



발사준비 마친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누리호는 이날 발사 준비 자동 제어시스템과 발사대 장비 제어 시스템 이상 상황 점검 및 조치를 완료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기준금리 세차례 연속 동결

한은 금통위, 연 3.50% 유지
물가 상승률 둔화 효과 보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3%대로 떨어지고,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금리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연 3.5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번째 동결이다.

기준금리를 유지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까지 5%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2월과 3월 4%대에 진입한 뒤 4월 3.7%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18개월가량 소요된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인상한 기준금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동결에 힘을 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5~5.25%로 결정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은행권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대출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경제성장과 고용,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1.75%p까지 벌어진 상태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커버스토리

도심 하늘 나는 후 상용화 분주 730조 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2040년 글로벌 UAM 규모>

UAM 실증 나선 이동사들

정부, 전담조직 구성·개발 독려
SKT, 협력사들과 드림팀 구성
KT, UAM전용 5G항공망 구축
LGU+, UATM 기술 개발 박차

이동통신사들이 UAM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이 뜨겁다. 이동사들은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AM사업에서 본격 실증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UAM은 스마트시티의 혁신 요소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을 선두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육상 기반의 다른 교통 사업모델에 비해 시장이 구체화될 때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서비스가 구현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시장은 2040년 국내만 1330억 원 규모, 세계 시장은 7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면>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UAM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SKT가 마련한 UAM 체험장에서 UAM 체험을 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내 기술 선도 기업들은 2025년 육상과 공중 교통을 연계하는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지상·항공 교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자를 목표로 2025년 UAM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영상 SKT 사장은 지난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3’에서 “SKT의 사업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현실에서

가상공간으로 연결될 것이며, 고객의 시공간을 더욱 의미있게 확대함으로써 모바일 오퍼레이터에서 모빌리티 오퍼레이터로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SKT는 협력파트너들과 UAM 운항의 핵심요소를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기체 및 운항 분야는 SKT, UAM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분야는 한국항공공사, 교통관리 분야는 한화시스템이 주도적으로 맡아 실증에 나선다.

SKT는 이번 실증 사업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인 글로벌 UAM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제 UAM 기체로 안정성 검증에 나선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4G 및 5G 기반의 UAM 특화 상공망을 활용해 UAM 운항 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KT는 한국형 UAM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항공망에는 KT가 개발한 3차원 커버리지 최적 설계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등이 적용됐다.

<4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전구체’ 내재화 행보... 공장 건설 잇따라

‘脫중국’ 나선 배터리 소재사 LG화학, 새만금에 공장 추진 포스코퓨처엠도 포항에 공장

날로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탈(脫)중국’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배터리 전구체’는 중국 소재 의존도가 높다.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구체 생산을 위해 국내 공장 짓기에 나선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구체의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터리는 양극재에 어떤 활물질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과 용도가 결정되는데 주로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등이 사용된다. 이런 원료들

을 섞은 화합물을 ‘전구체’라고 부른다. 여기에 리튬을 더하면 비로소 양극재가 되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안정적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하루빨리 내재화가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여기에 ‘배터리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구체 내재화는 필수다. 배터리는 이른바 ‘수출 효자’, ‘잘 나가

는 배터리’로 불려왔지만 무역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구체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5억 2423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 전구체 공장을 국내에 짓는 등 저마다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화요코발트와 손잡고 새만금국가산업단지(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며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양사는 2028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6공구에 전구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2026년까지 5만톤의 1차 생산 설비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회 정무위, 박민식 보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이성만 “녹취록은 대화 일부 짜깁기... 檢, 구속 통해서 압박하려는 것” /사진 뉴시스

▲ 민주, 위메이드 방문 의혹에 “입법 로비와 무관... 투자한 적 없어”
▲ 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끝 아닌 시작... 당 지원 강화”



▲ 김기현 “이재명, 식사자리 거절”... 李 “공개회동하지는 취지” /사진 뉴시스
▲ 김정은 스위스 유학동향 “아들 있던 얘기 못들어”... 정부 “불확실”

尹,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 수순... '정치력 실종' 우려감

윤 대통령, 양곡법 등 2건 거부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 법안취지·입법부 기능 상실 지적 민주당 "尹, 국회 의결 존중해야"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저지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는 가운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면서 진영논리에 우선한 '정치 실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쌀 초과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조건을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간호법 제정안' 2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뒤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오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결 투표까지 거쳤으나, 야당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친다는 입장이

나, 의결 정족수 확보는 힘들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처리된 일명 '노란봉투법'도 추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쟁점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표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본래 법안은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입법부의 조정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로 공공매입 조건을 명시해 봤으나 여야의 지난한 대립 끝에 이 기준을 완화하며 농민단체 등 현장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출범 2년 차 초반까지 2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임기 중 거부권 행사 횟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45건,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4건, 박근혜 2건, 문재인 0건으로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거부권 행사가 집중됐다.

민주당은 대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어느 법안이든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설사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공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누리호 발판... KAI와 '차세대 발사체' 경쟁

국내 민간기업 최초 우주사업 참여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 계획 나로호 4차부터 모든과정 참여하고 6차부터 일부제외 모든작업이 목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나서면서 국내 우주 산업도 정상 궤도로 오르는 모습이다. 그 중심엔 체계 종합기업 한화에어로소페이스가 있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기존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소페이스가 제작 총괄 관리와 발사 공동 운용 등 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끝나면 누리호보다 더 큰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주도할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누리호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소페이스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장기간 우주 사업을 이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국내 우주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한화에어로소페이스가 처음이다. 종전까지는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설계부터 모든 과정을 도맡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소페이스를

선정하고 발사를 함께한 것.

정부는 민간 우주 개발이 본격화한 글로벌 산업에 발맞추기 위해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도 세웠다. 독자적으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우주 산업 규모가 현재 500조원 수준, 2030년에는 1000조원에 달하고 2040년에는 150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우주 개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정부도 민간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한화는 일찌감치 우주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꾸준히 육성해왔다. 기존엔 엔진 기술을 토대로 지난 누리호 엔진을 생산 및 공급하기도 했다.

이번 발사에서는 일단 참관을 통해 항우연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화에어로소페이스는 직원 11명을 누리호 3차 발사 준비와 운용과정에 참관토록 해 기술을 습득했다. 발사지휘센터에서 2명이 발사준비부터 임무통제와 지원 등을, 6명이 발사체 준비와 시험 및 운용 등을 참관했다. 발사대에도 3명이 발사체 점검과 추력벡터구동기 작업 등을 배웠다. 발사 당일에도 관제센터에서 직접 발사 과정을 확인한다.

한화에어로소페이스는 다음 나로호



한화에어로소페이스 75톤액체로켓엔진.

4차 발사부터는 참관뿐 아니라 발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6차부터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작업을 직접 하게 목표다. /김재용 기자 juk@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 10% 지원 (3년 한시) | 수수료 0원 (5년 한시)

푸른씨앗심고! 희망 미래 열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

“근원물가 둔화속도 예상보다 더뎠”... 최종금리 3.75% 가닥

한은 기준금리 동결

경제성장률 1.6%→1.4% 하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전망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하며 점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통화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만 이들은 최종금리 인상 수준을 3.75%로 잡았다. 소비자물가가 예상한 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의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통화결정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7월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올해 상당 폭 낮아진 뒤 높아져 연말에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원물가의 경우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으로 예상치(3.0%)를 상회하는 3.3%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더딘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수준에서 유지한 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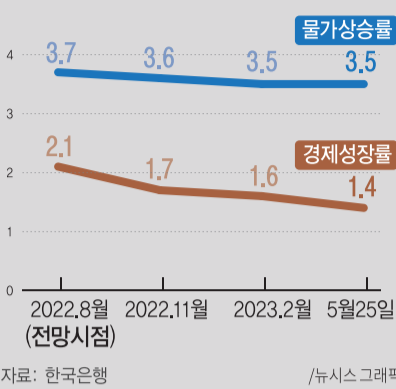
◆ 상저하고 패턴, 한 분기 정도 연기
이날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4%로 낮췄다. 지난 2월 1.7%이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조정된 뒤 또 다시 낮춘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 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T와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또 중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느리고, 회복하더라도 내수 중심이다 보니 주변국들에게 전파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인 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IT·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 회복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만 제외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 파급효과 등이 부진해 1.4%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더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뉴시스 그래픽

높아진다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가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분기 정도 밀리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1.4%의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이 1.3%대”라며 “제조업 중심, 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두고 비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반기 반도체 경기와 중국경제가 회복되면 1.4%에서 더 오를 수도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 금리인하 국면시 부채 문제 강조... 경기침체 가능성 우려

이날 이 총재는 금리인하 국면에 들어갈 때 가계부채 등 전체 부채 문제는 주요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설 경우 장기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05.1%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1 분기에는 떨어졌지만 5월을 보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며 “취약계층을 도와

주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경기가 잠재성장률보다 아래에 있고, 이자도 3%p까지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인하 국면에 들어갈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등 부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리인하 관심집중... “시기 예단 일러”

>> 1면 ‘기준금리 연속 동결...’서 계속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투자자들이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해 외화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 우려와 달러 원·달러 환율은 1310원에서 1320원대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금리인상 부담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관심사는 금리인하 시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경제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융비용이 줄어 들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 총재는 연내 인하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3%p 금리인상만으로 목표수준(2%대) 달성이 가능한지 지켜봐야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조금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물가가 확실하게 2%대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인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합작법인 설립 등 대규모 투자... “中 의존도 낮출 수 있을 것”

>> 1면 ‘전구체 내재화...’서 계속

공장이 자리를 잡으면 연간 10만톤 규모로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게된다. 전구체 10만 톤은 전기차 100만여 대(500km 주행 가능한 75kWh 용량 기준)에 사용 가능한 분량이다.

포스코퓨처엠도 화유코발트와 손

잡고 포함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 공장과 전구체 원료 중 하나인 니켈 원료 생산설비를 갖춘다. 연간 1만5000톤 규모에서 44만톤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내재화율을 14%에서 7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LG화학은 온산산업단지에도

려야연 계열사인 캠코와 함께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합작법인은 캠코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메탈 뿐만 아니라 폐기물인 스크랩(Scrap)과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사이클 메탈도 함께 활용해 전구체를 생산한다. 합작법인의 리사이클 공정은 건식

과 습식 공정을 결합하여 기존 공정 대비 메탈 회수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에코프로, 중국 거린메이와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설립하기로 올해 1분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최대 1조2100억원을 투자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만톤 수준의 전구체공장을 짓는다. 지이엠코리아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순차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방침이다.

배터리 소재업계 관계자는 “당장 중국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업들의 공장이 지어지면 점차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라며 “소재 내재화는 배터리 개발만큼 중요한 영역이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정부 밀고 지자체 끌고... K-UAM 팀 꾸려 선도국 맹추격



조비 에비에이션이 개발 중인 전기 항공기 기체 모습.

/조비 에비에이션

2025년 상용화 개시 목표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모집 7개 컨소시엄 출사표
물류배송·에어택시 등 서비스

정부가 정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는 2025년이다. 선도국 대비 UAM 사업을 2~3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른 속도로 선도국을 추격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비행시험장→준도심→도심 실증이 축약된다. 2035년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1조6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한다.

UAM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친환경, 저소음 교통수단으로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수소, 전고체 배터리 등 연료 전지부터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미래 공중 모빌리티의 핵심 축이다.

UAM 시장에서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EU(유럽연합) 등 선도국은 UAM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R&D 지원 및 실증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또 제도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항공국(FAA) 및 NASA의 주도로 UAM의 운용개념 및 발전 단계를 정립하고, 군의 신속한 기체개발과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또 민관협력 통합 실증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또 EU는 UAM을 포함해 유럽 내 단일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UAM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형 UAM 실증 사업 7개 컨소시엄 ‘출사표’

국토부가 한국형 UAM 실증에 참여할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사업자를 모집하자 7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항공(운항), 인천국제공항공사(교통관리·버티포트) 등 대한항공·인국공 컨소시엄, UAM조합(운항), 다보이앤씨(교통관리), 드론시스템(버티포트) 등 UAM조합컨소시엄, 현대차(운항), 대한항공(기체·운항), KT(교통관리), 현대건설(버티포트) 등 현대차·KT 컨소시엄, SKT(운항), 한화시스템(교통관리), 한국공항공사(버티포트) 등 K-UAM 드림팀, 카카오모빌리티(운항), LG유플러스(교통관리), GS건설(버티포트) 등 UAM 퓨처팀, 민트에어(운항), 롯데정보통신(교통관리), 롯데렌탈(버티포트) 등 롯데 컨소시엄, 제주항공(운항), 대우건설(교통관리·버티포트) 등 대우건설·제주항공 컨소시엄이다.

그랜드챌린지 참가팀들은 5G 등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상용화를 전제로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을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자체 권한 강화된 특별법 발의

UAM 산업은 기체(부품), 인프라, 서비스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체는 기체 부품의 개발, 설계 및 제작, 항법·제어·자율비행 소프트웨어 등

으로 구성된다. 인프라는 UAM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티포트의 설계·건설, 항행·통신·전력(충전) 설비, 관제시스템, 보안·안전 설비, 3D 정밀지도 등을 포함한다. 버티포트의 유형은 규모에 따라 허브공항 개념인 버티허브, 지역 터미널 개념인 버티포트, 버스정류장 개념의 버티스탑으로 구분된다.

서비스는 운송, 기체 대여, 버티포트 운영, 항행·교통관리(스케줄링·모니터링), 운항정보(기상·지형), MRO(유지보수·수리·정비), 플랫폼(예약·연계교통) 등을 포함한다.

UAM의 활용 범위는 운송 대상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물류배송(라스트마일), 에어셔틀, 에어택시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배송은 지역 물류센터에서 수취인에게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또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내 에어셔틀은 도심 내에서 정해진 노선을 운항해 버스·지하철과 유사하다. 특히 초기 운용에 적합하며 정기·부정기편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도시 간 에어셔틀은 도시 간 정해진 노선을 운항하며, 초기 운용에 적합하나, 운항거리 향상 기술이 필요하다.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택시는 승객 수요 발생에 따라 온디맨드 형식으로 운항하며, 택시와 유사하다. 또 높은 기술적 속도와 공역 규제 완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상용화를 기준으로 2020~2024년은 준비기, 2025~2029년은 초기, 2030년에서 2035년은 성장기, 2035년부터는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M 초기에는 거리를 100km로 정하고 조종사가 탑승해 유인교통관리체제로 운항하고 5대의 기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임은 km 당 3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기체는 16대를 운용하며 km 당 운임은 1300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UAM을 구성하는 5대 기술분야를 핵심적으로 제시했다.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자율비행·소음저감 등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신용 UP 채무 DOWN
신용회복위원회

값기 힘든 빛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 배우 차인표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 채무조정제도
연체 0~30일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법원 신청 접수 지원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지원 (소송구조기관 연계)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제도	채무조정 지원으로 상환이 어려우며,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신용복지컨설팅

- 신용컨설팅**
- 전문컨설턴트와 1:1 전화상담
- 신용도우미**
- 앱을 통해 신용관리 솔루션 제공
- 신용비타민**
- 유용한 정보를 모아 알림톡 발송

신용회복위원회 APP(챗봇)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하세요

전화상담 ☎1600-5500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인터넷상담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상담방법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후 담당심사역과 전화상담

운항고도 300m~600m ‘5G’ 서비스 기대

▶▶ 1면 ‘도심 하늘 나는 차’서 계속

이통사들, 관련 기술 개발 박차

이를 통해 UAM의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은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3차원으로 적용해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특수 및 일반 목적의 트래픽을 각각 분리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KT는 구축한 항공망을 K-UAM 컨소시엄사는 물론 UAM 중소기체 제작사와 운항사에도 제공한다. 이들 업체와 시험 비행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항공망 프로파일과 설계, 운영 노하우 등

을 축적할 계획이다.

KT인프라DX연구소장이종식 상무는 “KT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UAM 사업에서 고품질 상공 통신과 통신 기반 UAM 교통관리 시스템 ‘UATM’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과 컨소시엄 ‘UAM 퓨처팀’을 구성했다.

/채윤정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arthon**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작품명 **탄소를 묻는 그린 왕자**

지구가 더 초록으로 빛나는 건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묻을 수 있는
SK어스온의 기술력 때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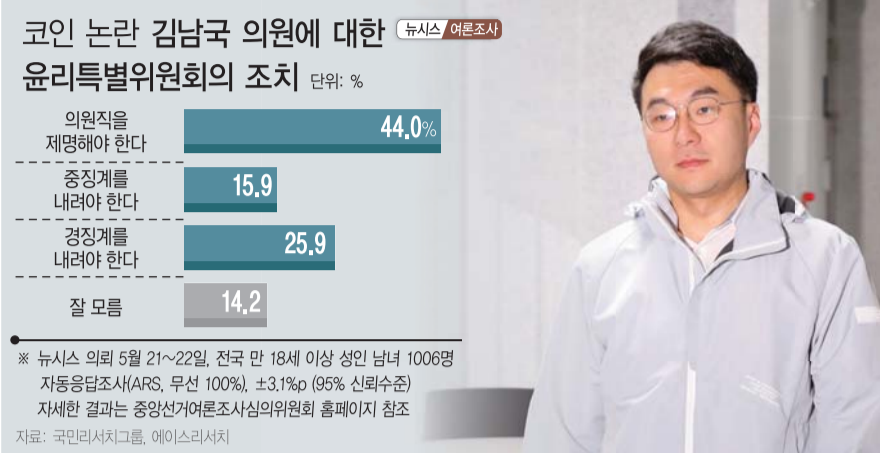
SK어스온의 **그린픽처**

‘제명’ 해본 적 없는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수위 이목집중

21대 국회, 징계안 처리 ‘0건’
이전 국회도 대부분 경고·사과 수준
여론조사 응답자 44% “제명해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김 의원 징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그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숨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윤리특위는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에 대한 건에 대해 살피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징계 심의가 이뤄지면 늦어진다며, 곧장 국회 본회의로 징계안을 넘겨 제명하자고 주장하는 반



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심의한 뒤 징계하도록 돼 있다.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제명을 제외하면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은 숨방망이 수

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논란으로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한 수준은 대부분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에 그쳤다. 최고수위인 ‘제명’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2011년), 성폭행 의혹이 있는 심학용 전 의원(2015년)뿐이다. 하지만 심 전 의원은 자진 사퇴해서 징계를 피했고,

강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결국 제명 징계가 내려진 건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징계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그대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39건의 징계안이 있으나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에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치’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44.0%가 ‘제명 조치해

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목소리는 15.9%였다. 경징계는 2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명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당 지지층별 응답은 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명’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징계’(14.2%), ‘경고’(5.4%) 순이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경고’가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명’(15.6%), ‘중징계’(14.5%)의 순이었다. 정의당 지지층도 ‘제명’이 31.3%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 역시 ‘제명’이라는 응답이 35.3%로 다수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하이투자증권

연말까지 iM하이 거래 시 국내주식 미국주식 수수료

원

기간

2023.05.23 - 2023.08.24

대상

비대면 스마트PB센터로 개설된 최초 신규 및 휴면 계좌

*이벤트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하이에서 시작하는 투자혜택의 중심

준비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신분증(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

iM

1단계
iM하이 설치
(웹사이트 or 콜센터에서 하이투자증권 또는 iM하이 검색)

신용하기

2단계
iM하이 App에서 비대면계좌개설 신청하기 클릭

본인인증

3단계
정보입력,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

1원

4단계
하이투자증권에서 입금된 1원 입금확인

혜택

5단계
혜택 받을 준비 완료하고 거래시작하기

www.hi-ib.com | 디지털컨택센터: 1588-717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795호 (2023.05.23 ~ 2024.05.22) 하이투자증권 준비감사인 심사필 제23-000-133호 (2023.05.23 ~ 2024.05.22)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권 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 또는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좌 잔고기 유자중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일반위탁수수료율은 거래금액과 매체에 따라 국내주식 0.0972%~0.4972%, 선물 0.002%~0.04975%, 옵션은 0.15%~1.4%(수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대상이 아닐 경우 미국주식 매매수수료는 0.25%(온라인기준)입니다. (예: 시, SEC FEE 0.0008%(이벤트 시작일 기준), 계좌금 별도 징수)
- 해외주식 환전 시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수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해외직접투자자는 매매차이에 관하여 연250만원 기본 공제 후 영도소득세22%(지방세포함)가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대상 PTP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도금액의 10%가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 일중에는 거래전략 등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발생으로 수익 실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이벤트페이지 하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벤트 바로가기

5대 강력범죄 마약사범 급증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최춘식 의원 “마약이 실생활 잠식”

살인·강도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 및 강제추행·강간·상해·폭행)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27명에서 2021년 9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6~2021년까지 6년간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총 451명에 이른다. 2016년 27명에 그쳤던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7년(38명), 2018년(92명), 2019년(116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은 85명으로 2019년 대비 다소 줄었으나 2021년 93명으로 다시 늘었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 대응 차원에서 ‘연속성 있는 집중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쪼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법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사용자가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이 핵심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데 대해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국정원 “北 사이버공격 74% 이메일 악용”

피싱 이메일 45% 네이버 위장

최근 3년간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 중 74%가 이메일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5일 북한의 해킹공격 유형, 사칭기관, 해킹공격에 사용한 메일 제목 및 실제 사칭 계정 등 2020~2022년까지 북한 해킹조직 사이버 공격 및 피해 통계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지속적 해킹공격을 진행하고 있어 대(對)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 이번엔 처음으로 북한 해킹공격 관련 통계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안프

로그래밍의 약점을 뚫는 ‘취약점 악용(20%)’이나 특정 사이트 접속 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위터링 홀(3%)’ 수법 등도 활용했지만, 이메일을 악용한 해킹공격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메일 수신자가 해당 메일을 별다른 의심 없이 열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히 ‘발신자명’과 ‘메일 제목’을 교묘하게 변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 이메일의 45%는 네이버를 위장했으며, 카카오톡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위장한 이메일도 23%로 파악됐다. 이어 금융·기업·언론사(12%), 외교·안보 기관(6%) 순으로 집계됐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원지 | 바니보틀 | 각류브

진정한 마라맛을 찾아서

마라로드



WARNING 매운맛주의

‘2파전’ 차기 우리은행장, 오늘 최종후보 선정

카드 News

롯데카드 ‘디지로카 앱’ 홈쇼핑 ‘엘라이브’ 송출

우리금융지주 자추위
이석태·조병규 후보 2명 압축
심층면접·경영계획 PT 진행



이석태 부행장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는 1차 후보 4명 가운데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부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자추위는 지난 3월 24일부터 ‘경영승계프로그램’을 통해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부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 금융부부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평가했다.

평가는 총 3단계로 걸쳐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워크숍 형태의 1대 1 심층 인터뷰 ▲임원 재임 기간 중 평판 조희 ▲업무보고를 통한 회장과 이사회 의 업무역량 평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부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이석태 부부장은 1964년생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와 상업은행에 입행한 뒤, 우리금융지주의 신사업총괄 전무,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을 거쳐 올해 3월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부장 겸 개인

그룹장(부행장)에 올랐다.

조병규 대표는 1965년생으로 경희대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으로 입행했으며,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집행부행장보)과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보, 기업그룹 집행부행장을 거쳐 이달 초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 선임됐다.

2명의 후보 모두 상업은행 출신으로

당초 금융권에서 예상했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간 파벌싸움은 일단락됐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이날 선정된 2차 후보군 2인을 대상으로 마지막 심층면접과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26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은행장 선임의 관건은 영업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회장이 차기 은행장 선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현장 영업력’을 꼽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파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한 행장 선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점수와 외부전문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자회사들이 영업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주사가 명확한 전략 방향을 제시해 금융지주 체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롯데카드와 롯데홈쇼핑이 협업을 통해 라이브커머스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 디지로카서 엘라이브 시청…롯데카드 결제 혜택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에서 롯데홈쇼핑의 모바일TV ‘엘라이브(L.live)’를 송출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로카앱내 ‘마이(MY) 피드’ 엘라이브 게시물에서 ‘엘라이브 방송보기’를 클릭하면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요일별 방송 편성표 확인도 가능하다.

엘라이브를 시청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 캐시백을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내달 4일까지 최대 5% 할인, 20% 롯데홈쇼핑 적립 등의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ESG에 진심’ 신한카드 세 번째 성과 보고서

신한카드가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공개했다.

◆ 2021년 첫 보고서 발간 후 세 번째 신한카드는 지속 가능한 ESG 활동 및 성과, 관련 데이터를 담은 ‘2022 ESG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첫 보고서는 지난 2021년에 발간했다. ESG 소통 강화를 위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을 지속한다.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인 ‘AA1000’과 미국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ESG 관련 기준을 참고해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데이터 책임 ▲디지털 혁신 ▲고객 관점의 금융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표지의 꽃은 ‘금강초롱꽃’이다. 금강초롱꽃은 산림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보전 프로젝트의 복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가계대출, 하반기 ‘연체 쓰나미’ 우려

7월부터 금리인상 따른 부담 증가
9월 말 ‘코로나 금융지원’도 종료
당국 “충당금 등 리스크관리 집중”

최근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오를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오는 7월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까지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연체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자 상당한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신용대출 등을 줄인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3%로 전월(0.36%) 대비 0.03%p 하락했다. 다만, 이는 1년 전보다 (0.22%) 0.11%p 오른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년(0.17%)보다 0.14%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0%p 오른 0.20%,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28%p 상승한 0.59%의 연체율을 기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규 연체액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감소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전달보다 0.008%p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해당 월의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달 말의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쯤부터 연체율이 본격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의 변동금리 적용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본

격화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 분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대출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은행권 연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 중 상환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관련한 부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부실 위험관리에 돌입했고, 당국도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구름이 달리지 하늘이 움직이나?”

법륜을 굴리며 떠나간, 한국 불교사를 빛낸 고승 傳記

《동사열전 東師列傳》

《동사열전》은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시점으로 알려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 이래 조선조 고종 31년인 1894년까지 1,500여 년의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197명의 고승(편저자 梵海 覺岸 강백 포함)과 2명의 불교인 등 총 199명의 행장(行狀)을 기록한 전기문물로서, ‘인물로 보는 한국 불교사’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고승이 언제, 무엇 때문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 오도견성(悟道見性) 했는지, 이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자(譯者) 김윤세(金允世).
과거 불교신문 기자로 일하며 6년 간 연재했던, 한국 불교사를 빛낸 199인의 전기(傳記)를 엮은 책이 《동사열전》이다.
그밖의 저서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라] [내 안의 자연이 나를 살린다] [양생 의학 천자문] 등이 있다.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더니(八十年前是我).
80년 뒤에는 내가 저것이고네(八十年後我是渠)
- 청허(淸虛) 휴정(休靜:1520~1604)이
입적하기 직전, 마지막 설법을 마친 후
자신의 영정 위에 쓴 시.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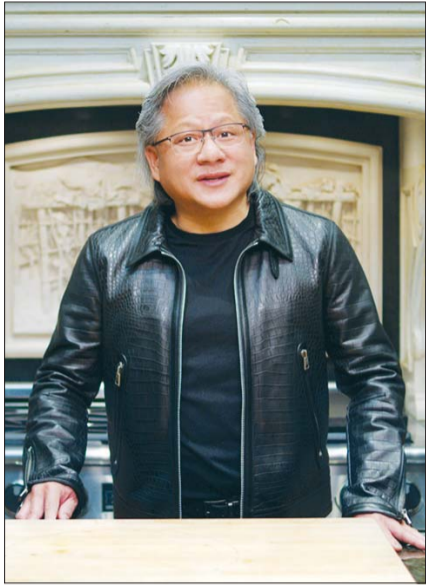
법해선사(梵海禪師) 편저
김윤세(金允世) 한역
780P | 양장본



건강 환승의 門!
月刊 [인산의학]

엔비디아, AI 수혜 ‘깜짝실적’... 반도체 업계 반등 ‘기대감’

2~4월까지 매출 110억달러 예상
챗GPT위한 서버업계 증설 본격화
GPU·AI 반도체 생산 수혜 추정
기술 경쟁·인력 채용 활발해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 고성능 서버 수요가 회복세를 분명히 하면서다. 메모리 업계도 다시 투자에 나설 분위기, 시장 회복은 여전히 속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엔비디아는 24일(현지시간) 2월부터 4월까지 매출 110억달러(한화 약 14조5000억원)를 예상하는 전망을 발표했다.

월가에서 전망한 71억5000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반도체 불황이 비메모리에도 확대하며 상반기까지는 부정적이었던 업계 전망을 완전히 뒤집은 것.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데이터 센터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다. 챗GPT를 위한 서버 업계 증설이 본격화하면서 GPU와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은 것을 추정된다. 이는 메모리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 서버에서는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공급 과잉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공급 초과를 예상했던 대만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D램 공급량이 수요를 하회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업계가 감산을 본격화하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 7월부터는 다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수요 회복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신한투자증권은 ‘끝이 보인다’는 보고서를 통해 4월 제조업 지수가 역사적 하단에 근접한 반면 수요도 바닥에 다다랐으며 업황이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고 봤다. 2분기 93.5%인 상대 수요가 3분

기에는 99%, 4분기에는 105%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수지도 제시했다.

특히 DDR5 D램이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DDR4와는 달리 DDR5는 재고가 정상수준이고, 인텔 4세대 제온 보급에 따른 서버 투자 확대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D램 ASP(평균판매단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로 메모리 업계는 DDR4를 중심으로 감산을 하면서도, 5세대 10나노(1b)급 D램 양산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12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평가받았던 DDR5 비중을 대폭 높인 상황,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조만간 양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 시점이 기술력뿐 아니라 수요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고효율 메모리 수요가 늘어

나는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인력 채용도 다시 활발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삼성커리어에서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2~3월이었던 예년보다는 다소 늦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채용 포털을 통해 HBM4를 개발할 디지털 설계 인력과 D램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분석 경력직을 뽑고 있다. 그 밖에도 소부장 업체들 다수가 본격적으로 채용 문을 열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을지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올해까지는 DDR4 재고를 해결해야 하는 데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리오픈링 효과도 미미, 애플 아이폰 등 출하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화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세레머니 진행
100kW·200kW 급속 충전기 생산
안정성·효율성 등 모두 개선



(왼쪽부터) 하이비차저 강동주 대표, GS에너지 김성원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 LG전자 장익환 BS사업본부장, GS엠비즈 허철홍 대표 이사

LG전자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맞을 올렸다.

LG전자는 24일 경기도 LG디지털파크에서 전기차 충전기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오픈 세레머니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레머니에서는 7kW 완속 충전기와 함께 100kW와 200kW급 급속 충전기 4종을 처음 선보였다. 방수방진 등 안정성은 물론 얇은 두께에 2채널 디스플레이 공간을 효율화하고, 디스플레이 설치와 원격 업데이트 등으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모두 개선했다.

LG전자는 일찌감치 전기차 생산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형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EV 충전사업담당을 신설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 GS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6대 4비율로 지분을 보유한다. 이번에 사명을 하이비차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충전기 개발과 생산 능력을 내재화하고 있다. 충전소 운영 노하우와 고객

접점을 확보한 GS와 함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으로 확대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충전기 생산뿐 아니라 충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충전 경험 가치’를 제고하며 맞춤형 복합 충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 확대폭이 큰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 출시와 현지 충전 사업자와의 사업모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 서흥규 상무는 “이번 충전기 생산은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으로서 거듭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빠른 충전, 충전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품질기반으로 다양한 충전기 품팩터, 신규 서비스 등의 차별화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국제인증 획득

LX판토스, 배터리 운송 경쟁력 확보
관리체계구축·전문성 확보 증명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대표 최원혁)가 국내 기업 최초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품질 인증(CEIV Li-Batt)’을 획득했다.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배터리 운송 분야에서 특화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물류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X판토스는 2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 행사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품질관리체계 인증인 ‘CEIV Li-Batt’을 국내 기업 최초로 받았다고 밝혔다.

‘CEIV Li-Batt’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엄격한 위험물 관리 체계 하에 리튬 배터리 화물의 안정적인 항공운송을 보장하는 국제표준 인증 제도이다.

리튬 배터리 화물에 대한 운송 절차와 시설, 규정 준수, 전문 인력 등 총 10

개 분야 33개 항목을 까다롭게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리튬 배터리는 일반 화물과는 달리 화재와 폭발 위험성으로 운송 및 보관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취급 난이도가 매우 높다. 리튬 배터리를 취급하는 물류업체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신력 있는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LX판토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위험물인 리튬 배터리 화물의 취급 전 과정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했음을 증명했다.

글로벌 항공물류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전기차·배터리 물류 시장 공략 및 사업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5년 6천160억 달러(815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전량치(1천210억달러)의 5배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애경케미칼, 이차전지 연구·개발 집중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애경케미칼이 합성수지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이차전지 소재들의 단점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연달아 개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성능 시험을 통해

충·방전 중 실리콘계 음극재의 부피가 변하더라도 구성 요소들 간 접착력과 초기 전극 구조가 효과적으로 유지돼 배터리의 사이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국내외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으며, 국내는 물론이고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업체들과도 적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방열접착제는 충·방전 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열을 방출해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이차전지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소재로, 글로벌 시장조사기

업에서는 전기차 보급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2028년 3조원 수준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한 실리콘 타입의 방열접착제는 냉각 성능은 우수한 반면,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아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으로 셀과 모듈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애경케미칼 측은 “애경케미칼이 개발한 제품은 열전도도와 접착력을 모두 갖춘 소재로, 기존 실리콘 타입에 비해 접착력이 높고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목·토요일 주2회 중 시안 경유 노선

대한항공이 5월 25일부터 중국 정저우에 화물기를 신규 취항한다.

정저우 노선은 주 2회(목·토) 오전 0시 5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시안을 경유해 도착한 뒤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노선이다. 연료 효율성이 높은 B777 화물기가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정저우가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내륙의 물류 허브이자 중국 중부굴기의 중심 도시로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휴대폰과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또 정저우 인근에 전기차 제조

업체들의 배터리 공장 신설과 로봇산업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중으로 향후 신규 수요 개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저우는 상하이, 텐진, 광저우, 시안, 홍콩에 이어 대한항공의 6번째 화물기 운영 중국 노선이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정저우 노선 화물기 신규 취항은 중국 방역 규제 완화로 인한 중국 내 생산 정상화와 맞물려 신수요 창출, 수익 기반 확장을 위한 발판”이라며 “중국 화물 노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노조 “파업보다 실익”, 기아 노조 “상견례 전 총파업”

현대차그룹 ‘임단협’ 엇갈린 행보
기본급·성과급 인상 등 요구
현대차 노조, 내달 상견례 가져
기아, 31일 주·야 4시간 총파업

국내자동차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다음 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투쟁’에 나서기보다 ‘실익’에 집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기아 노조는 상견례 전부터 전국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노조가 지난달부터 최근



지난해 임금협상 상견례 갖는 현대차 노사.

까지 조합원 5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안전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질문(3가지 이하 복수 응답 가능)에 조합원 2994명(54%)이 ‘상여급 800% 요구’를 선택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기준 수립(2551명), 각종 수당 현실화(2268명), 정년 연장(22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액은 ‘시장 현황

과 회사 실적을 반영한 금액’을 선택한 비율이 57.2%를 기록했다. ‘금속노조 지침을 준수한 18만4900원’을 선택한 비율은 29.1%로 나타났다.

올해 투쟁 방향은 ‘각 지역과 사업부 실정에 맞게 투쟁’이 27.6%를 기록했다. 이어 ‘8시간 혹은 하루 전면파업’은 24.5%, ‘4시간 이내 부분파업을 여러 날 전개’는 10.9%, ‘전 조합원 울산 집

결 대형 투쟁’은 11.9%로 집계됐다. 반면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24%를 기록했다.

노조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해 임단협 요구안을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기본급 18만49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이 요구안에 담길 것이라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오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기아차지부도 주·야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측과 교섭계시를 위한 상견례도 시작하기 전부터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아가 전기차 시장공략을 위해 내놓은 핵심 모델인 EV9 공식 출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생산 지연이 우려

된다. 또 기아가 최근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국내외 공장을 풀가동하는 상황인 만큼 총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최대임금과 최대 성과급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기아노조도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매년 정년연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최대 실적에 걸맞은 최대 임금과 최대 성과급 쟁취를 최우선으로 하고 올해 임금 및 별도 요구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조답게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철강 등 亞 수출 확대 나서

‘아시아 성장전략회의’ 개최
亞 시장 3년간 연평균 31% 성장세

지난 4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14개월 연속 지속됨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이 아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는 25일 태국방콕에서 정략 부회장을 포함한 아시아 17개 조직(무역법인 및 지점 10개, 지사 4개, 투자법인 3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성장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포스코인터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호주,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아시아로 분류한다. 포스코인터가 아시아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한 배경에는 아시아는 최근 중

국 리스크 확대 속에서 급부상하는 사업장이다. 이 지역은 회사 글로벌 사업 부문 트레이딩 실적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인터 철강사업 부문의 지난해 중국 수출 실적은 전년(2021년) 대비 4% 감소한 14억 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아시아 수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1%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기준 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포스코인터는 이번 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아시아 내 철강, 에너지, 식량 등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고객을 밀착 관리해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철강사업은 올해 전체 철강 수출물량 1100만톤 중 25%에 해당하는 280만톤 이상의 수출 목표를 아시아에

서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지 조달이 불가능한 포스코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세일즈 믹스를 개선한다. 또 포스코 해외법인을 활용한 아시아산 제품 소싱도 다변화한다. 이와 함께 최근 아시아 내 친환경 움직임에 따라 대체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태양광, 풍력, 모빌리티 등 친환경 산업용 강재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략 부회장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전문가 집단인 포스코인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KT, 신규 RU 상용망 기술검증 완료

(5G·LTE 안테나 결합)

스웨덴 에릭슨과 공동 개발

KT가 5G와 LTE 안테나가 결합된 신규 RU(Remote Unit)의 상용망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증을 통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성능저하 없이 5G와 LTE 통신 커버리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KT는 기지국 설치에 큰 걸림돌인 건물 옥상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에릭슨과 5G와 LTE 결합 신규 RU 개발 논의를 진행해왔다. 작년 11월에는 스웨덴 에릭슨 연구소에서 신규 RU를 이용한 기술 시연을 선보였다.

신규 RU는 LTE 안테나 뒷면에 5G 안테나를 배치해 5G 신호가 LTE 패시브 안테나를 통과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테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 동일한 건물 면적에 더 많은 LTE, 5G 안테나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KT는 이번 검증에서 5G 커버리지에 영향을 주는 ‘빔포밍(Beamforming)’



KT 임직원이 상용망에서 결합형 RU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KT

성능 감소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KT는 5G 신호가 LTE 안테나를 간섭없이 통과하여 전송되는 ‘빔 스루(Beam Through)’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성능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검증 성공으로 결합 신규 RU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KT 네트워크연구기술본부장 구재형 상무는 “이번 에릭슨과의 PoC를 통해 5G 커버리지 확대와 효율적인 5G망 진화 및 6G 장비 도입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KT의 5G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현대모비스
‘HD 라이팅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가 주행 정보를 전방 노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차세대 헤드램프 개발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전자와 보행자 야간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HD 라이팅 시스템’은 주행정보를 글자나 도형으로 시각화하고 노면에 투영하는 기술이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에 ‘공사중’ 상태를 기호로 알려주고 보행자에게는 횡단보도 표시를 램프 빛을 통해 노면에 구현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주행정보를 알려주는 안전편의 기술로는 내비게이션과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있지만, HD 라이팅 시스템은 야간 주행 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고려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황현식, 제휴 매장 방문해 소상공인 응원

U+우리동네멤버십 프로그램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25일 ‘U+우리동네멤버십-용산 한강대로편’ 제휴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 사장님을 응원했다.

LG유플러스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제휴를 맺고 자사 모바일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U+우리동네멤버십 프로그램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인근 한강대로에 위치한 식당, 카페, 꽃집 등 31개 매장에 멤버십 고객이 방문하면 최대 80% 할인, 사이드 메뉴 무료 증정 등 혜택을 멤버십 앱 내 쿠폰 형태로 제공한다.

황현식 대표는 이날 ‘메이플라워’(꽃집)와 ‘몽브르378’(카페&베이커리)를 방문해 꽃바구니와 빵을 구매했다. 황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25일 카페 몽브르 378에서 영락보린원 원아들에게 전달할 빵을 고르고 있다. /LG유플러스

대표가 구매한 상품은 용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영락보린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카카오, 전국 100개 ‘우리동네 단골시장’

점포·시장 대표 특채널 지원

카카오의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가 전국 100개 시장으로 확대된다.

카카오가 카카오임팩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2023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동네 단골시장’은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상인들을 지원하는 ‘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우리동네 단골시장은 100개 시장을 대상으로 ‘점포 특채널 지원’과 ‘시장 대표 특채널 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점포 특채널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튜터가 특채널 개설부터 온라인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올해 총 20개 시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장은 오는 6월 9일(금)까지 우리동네 단골시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Festa & Green Festa

www.veganfesta.com

비건페스타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헬스케어
생활용품&반려동물용품 | 친환경 제품

2023.10.13(금)~15(일)
aT Center



롤러코스터 2차전지株 다시 주춤? 자동차株 요동에 ‘눈치게임’ 지속

포스코애펙·LG엔솔 급등락 지속 테슬라, 5일간 오르다 2일간 하락 “대규모 수주 전까지 변동성 클 것” 에코프로비엠 투자 의견 하향조정

고평가 논란으로 급락세를 타던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다 다시 주춤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주가 상승 기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만큼 2차전지주의 주가는 계속 요동칠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애펙 종목이 전장 대비 9.65% 급등했다. 하지만 25일 다시 전장보다 5.40% 하락하면서 주춤했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22일부터 24일까지 연속 상승하며 3일간 5.6% 가량 올랐지만 이날 0.34% 내렸다. 이외에도 삼성SDI(-1.96%), 포스코퓨처엠(-1.95%),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3.53%), 에코프로비엠(-1.02%)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전부 하락

하면서 반등 기대감이 꺾인 모습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4.85% 상승하면서 188.87달러를 기록해 주목됐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현지 기준으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1.64%, 1.54%씩 하락하며 주춤하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연결되는 양상이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주도 25일 각각 1.93%, 2.24%씩 내리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 움직임으로 2차전지주 반등 기대감이 올랐었지만 다시 예외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근거와 별개로 상반기 내내 지속된 주가 급등으로 피로감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대규모 수주나 신규 고객 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더라도 가파르게 성장해 온 만큼 급락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회복 단계로 들어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증권사들 역시 ‘과열 구간’이라는 평가와 투자의견 하향 등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진투자증권은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을 반영한 상태”라며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1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평가가치가 하향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서 단기 조정을 거칠 수는 있다”면서도 “연간 가파른 성장률과 수직 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세그먼트 확대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밸류 부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남성현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왼쪽부터)과 김영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 조경석 포스코 환경기획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포스코, 친환경 시멘트로 탄소중립 실천

한전과 ‘포스멘트’ 활용 업무협약

포스코그룹이 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저탄소 친환경 시멘트를 활용한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는 지난 24일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을 ‘포스멘트’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포스멘트(PosMent)는 포스코그룹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시멘트다. 석회석 대신 철강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고로슬래그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때문에 톤당 약 0.8톤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는 일반 시멘트보다 최대 60%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고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내에서 사용되는 일반 시멘트를 포스코그룹이 개발한 탄소저감 시멘트인 ‘포스멘트’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배전 분야 설비(맨홀, 기초대 등)에 포스멘트 적용 기술을 자문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포스멘트를 적용한 기기설비 기초대를 개발해 한전표준규격에서 포스멘트를 추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포스멘트용 수재슬래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전력산업 분야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친환경 시멘트 ‘포스멘트’ 사용을 확대해 에코(Eco)-챌린지(Challenge)를 추구하는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리얼밸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금투협, 국제 자본시장 이슈·동향 공유

ICSA 연차총회·국제컨퍼런스 내달 18일부터 총 3일간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ICSA 연차총회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ICSA는 국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공동 정책 개발, 국제감독기구 정책제언,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협회들이 총 2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대륙별로 순차적 개최되는 ICSA 연차총회는 국제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 금번 연차총회도 금융투자업계가 팬데믹과 기술혁신의 임계점에 직면한 이 시기에 맞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글

로벌 파트너십 강화,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혁신 트렌드를 파악할 목적으로 적극 추진됐다.

연차총회 첫날과 둘째날은 ICSA 행정처리 등 ICSA 회원들만 참여하는 ‘Closed Session’으로 진행된다. 셋째 날인 6월 20일에는 ‘Future-proofing the Financial Industry’라는 테마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Future-proofing the Financial Industry’는 금융 산업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으로, 다양한 대내외 미래 위기요인에 맞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참여 주체자들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의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및 테크 혁명 ▲가상자산 시장 ▲선진 글로벌시장의 성공적인 모험자본 공급 체계 ▲거래플랫폼의 다각화 트렌드

(ATS, 내부주문집행, STO 등) ▲평생 소득·퇴직연금 중심의 글로벌 자산관리시장의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본회가 초빙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ICSA 연차총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입지를 널리 알리고 회원사의 글로벌 규제·상품·서비스 트렌드 파악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오랫동안 ICSA 사무국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는 이사회 국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ICSA 연차총회를 통해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해외진출과 국제 사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코스콤,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 설명회

ESG투자자문 등 23개 자문사 입점

코스콤이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자사가 운영 중인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Fundora)’의 서비스 확대와 제휴 서비스 소개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24일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 펀도라는 일반 투자자가 다수 투자자문사의 포트폴리오를 구독하고, 직접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자문계약, 상품 주문까지 증권사로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현재 플레인바닐라, ESG투자자문, 골든트리투자자문 등 23개 우수 자문사가 입점해 펀드 및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로 구성된 37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서비스하고 있다.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의 계좌를 자문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계증권사는 지속 확대 중이다. 투자자문사 대상으로는 다수 고객과의 자문계약 통합관리 및 포트폴리오 자동 리밸런싱 등이 가능한 백오피스 기능을 제공 중이다.

/신하은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소부장 ETF 15배 성장

상장 한달만의 성과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인 ‘SOL 소부장 ETF’가 상장 한달 만에 15배 규모로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각각 80억 원으로 상장한 ‘SOL 반도체 소부장 Fn’ ETF와 ‘SOL 2차전지 소부장 Fn’ ETF는 24일 기준으로 상장 한달 만에 각각 순자산 791억 원, 1584억 원의 규모로 성장, 총 2375억 원을 기록했다.

SOL 소부장 ETF가 상장한 4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약 한달 간 개인투자

자의 순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SOL 2차전지 소부장 Fn ETF가 1070억원으로 전체 1위, SOL 반도체 소부장 Fn ETF에 201억원으로 전체 6위를 기록하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변동성 장세에서 레버리지·인버스와 채권형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SOL 소부장 ETF는 개인투자자가 높은 관심을 보인 유일한 주식 테마형 상품이었다”며 “ETF 시장의 주요 테마인 반도체와 2차전지를 선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해 세분화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S건설 ‘운정자이 시그니처’ 988가구 분양

내달 5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청약

GS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사진)’ 74~134㎡, 98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

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다.

단지는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6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미래 식량 '배양육'... 글로벌 경쟁력 '안전·신뢰도' 중요

‘제210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실제 동물세포 배양해 만든 육류
소비자 만족시킬 수 있는 ‘맛’ 중요

미래 식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양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과 ‘혁신’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4일 한림원회관에서 열린 ‘제210회 한림원탁토론회’는 ‘대체 단백질 식품과 배양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배양육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배양육은 대체육이라고 불리던 ‘대체단백질’과 다른 개념이다. 대체단백질은 콩과 같은 식물을 기반으로 만든 고기 맛을 내는 식품인 반면, 배양육은 실제 동물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들어내는 육류다. 한때 주목을 받았던 이 대체단백질은 ‘맛’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이제 2세대 배양



조상우 풀무원기술원 P&P개발2실 부사장, 장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배호재 건국대학교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 박용호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명예교수, 서진호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명예교수, 김연화 소비자공학네트워크 회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왼쪽부터)이 지난 24일 한림원회관에서 열린 ‘제21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대체 단백질 식품과 배양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육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서진호 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 명예교수 “1세대 대체단백질과는 달리 배양육은 정밀발효기술을 통해 고기의 맛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 것이 기술의 차이”라며 “이제는 2세대 배양육의 미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배양육의 성장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이다. 배양육이 실제스테이크와 같은

질 높고 맛도 좋은 고기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시판 단가를 낮추는 것도 큰 숙제다.

배호재 건국대학교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는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과 세포의 대량 배양을 위한 바이오투터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데 모든 기술은 궁극적으로 배양육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데 중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

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김연화 소비자 네트워크 회장은 “배양육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고, 어떤 항생제가 쓰이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며 “첨가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정확한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배양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양육 생산과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조상우 풀무원기술원 부사장은 “세포배양육에 대한 법적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규제와 기준이 마련돼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고 기술 발전,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넓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기업 경쟁력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위생법 안에 대체식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율해 하반기 기준과 규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배양육 역시 ‘세포배양식품’이라는 용어로 잠정 결정하고, 세포주나 배양액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율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고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등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품목 키운다 SK그룹, 탄소중립 미래 청사진 그린다

양극재 수출액 지난해 2.6배 증가
올 들어 2배 이상 가파른 성장세
배터리 수출 작년 역대 최고치 경신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소재가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다”며 “이차전지 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연구원 황경인 박사는 배터리 및 소재가 5년 내 우리의 5대 수출 품목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이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석유화학·기계·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충북 청주 소재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철강 등 7개로 고정돼 있었다. 여기에 배터리와 소재가 추가된다는 전망이다.

황 박사는 “한국은 배터리 산업 밸류 체인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을 뺀 세계 시장에서 현재 49% 수준인 한국 배터리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2025년 55% 수준으로 6% 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배터리와 소재 수출은 바람을

타고 있다. 양극재 수출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파른 성장세다. 배터리도 작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올해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배터리 및 소재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품목 고도화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지원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수출품목 고도화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니켈함량 95% 이상), 실리콘 음극재(실리콘 함량 20% 이상) 등을 개발한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선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ESS용 레독스 전지 등 삼원계 외 배터리와 양극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LFP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난 달 착수한데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신규 과제를 기획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SKE&S 등 6개 계열 전시부스 운영

SK그룹이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여해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친환경 제품, 기술 및 솔루션을 선보인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 E&S, SK 에코플랜트, SKC, SK(주) C&C, SK 일렉트릭 등 6개 계열사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된 탄소중립관에 450㎡ 규모의 통합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SK그룹 계열사들은 이번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통해 지난 CES 전시의 연속선상에서 탄소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는 전기차 배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소 밸류체인, 재생에너지 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넷제로(Net Zero)’ 기술과 사업 청사진을 소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및 친환경 기술을 집약해 선보인다. 우선 ▲SK온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포드 150에 탑재된 ‘NCM9’ ▲현존하는 전기차 배터리 중 충전속도가 가장 빨라 단 18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한 ‘SF(Super Fast) 배터리’ 등을 전시한다.

또, SK는 생활 속에서 대량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다시 석유자원으로 되돌리는 SK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함께 전시한다. SK지오센트릭은 전 세계에서 3대 폐플라스틱 재활용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기업으로, 2025년 울산에 준공되는 세계 최초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단지를 통해 연간 32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SK E&S는 수소 생산·유통·활용,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다양한 탄소 감축 솔루션과



SK,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친환경 제품, 기술 및 솔루션을 선보인다. /SK

함께 수소 사업 파트너사 플러그파워(Plug Power)의 수소연료전지 및 지게차 등의 실물을 전시한다.

SKC는 친환경 플라스틱 정보 플랫폼 ‘마이 그린 플레이스(My Green Place)’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마이 그린 플레이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게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5만 종 이상의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출시 1년 만에 약 6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SK(주) C&C는 탄소 중립 실현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컨설팅을 시작으로 ▲ESG 종합 진단 플랫폼 ‘클릭(Click) ESG’ ▲탄소 감축 인증·거래 플랫폼 ‘센테로(Centero)’ ▲스코프3(Scope3) 수준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넷제로 플랫폼’ 등을 소개한다.

SK 관계자는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주제와 SK가 추구하는 탄소 감축 여정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SK가 친환경 산업 전반에서 가장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기술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BMW, ‘차체 커진’ 8세대 5시리즈 선보

길이 97mm, 너비 32mm 등 증가

BMW 5시리즈가 8세대로 거듭났다. BMW는 24일(현지시간) 뉴5시리즈를 처음 공개했다. 오는 10월 글로벌 출시를 준비 중이다.

5시리즈는 BMW의 주력 모델이다. 1972년 처음 출시된 후 전세계에서 800만대 이상 판매됐으며, 이번에 8세대로 완전 변경했다.

뉴 5시리즈는 길이가 97mm, 너비 32mm, 높이 36mm가 증가하고 축간 거리

도 20mm 늘려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다.

외관은 BMW를 상징하는 키드니 그릴과 더블 헤드라이트를 중심으로 새로 해석됐다. 헤드라이트는 조명 4개로 구성, 7시리즈에 적용됐던 라디에이터 그릴 조명 ‘BMW 아이코닉 글로우’를 조합했다. 측면에 캐릭터 라인 2개로 역동적인 실루엣을 강조하고 C필러에 호프 마스터 킥에 숫자 5를 나타내는 그래픽을 양각으로 적용했다.

실내는 친환경성을 대폭 강화했다. 완전 비건 소재인 가죽과 같은 질감의

베간지 시트를 기본제공하고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도 선택할 수 있다.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기어 셀렉터로 물리적 버튼도 최소화했다. BMW 인터랙션 바는 크리스탈 디자인으로 계기반부터 도어까지 펼쳐려 셔리함을 더했다.

첨단 기능도 대거 더했다. 레벨2 수준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전 모델에 기본 장착, 파킹 어시스턴트로 차량 밖에서도 주차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지역인재 육성해 인력난 해소... 산업부, 채용연계사업 추진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전문인력 양성·중견 채용연계
충남·경남·울산 컨소시엄 선정
년 13.8억... 5년간 30여 명 양성

지자체와 대학, 중견기업 등이 힘을 합쳐 지역인재를 양성해 채용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지자체-대학-중견기업-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 선정〉

지역	주관기관	참여기관
충남	공주대학교	주식회사 코넥, ㈜용산, 한국자동차연구원
경남	창원대학교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위딘
울산	울산대학교	코리아피티지(주), 코스모화학주식회사, 울산테크노파크

혁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충남), 금속 3D프린팅(경남), 이차전지(울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이날 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채용연계형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현판증

정식'을 개최했다.

미래차 컨소시엄은 공주대와 주식회사 코넥, 주식회사 용산,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3D프린팅 컨소시엄은 창원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위딘이, 이차전지 컨소시엄에는 울산대와 코리아피티지, 코스모화학주식

회사, 울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컨소시엄 당 연간 13억8000만원 씩 5년간 69억원씩 지원을 통해 공동연구개발 기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과 중견기업 채용연계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엔 3개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참여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교, 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 대학, 지자체, 혁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컨소시엄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을 발

표했다. 컨소시엄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30여명 내외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해 사업 참여 중견기업에 채용 연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지역 중견기업들은 우수 연구인력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성장 잠재력 하락... 3대 개혁에 역량 집중” 단백질 바 65%, 밥 한공기보다 열량 높다

추경호 부총리, 1000조 나라빛 우리
첨단산업·기술분야 R&D 투자 확대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계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가채무가 급증해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한 가운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채무가 1053조 원에 달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연구·개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회사에서 그는 "대한민국은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며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깨닫고 공유해 명실상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프로바 등 5개 제품 250Kcal 넘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고려해 선택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가운데, 열량이 쌀밥 한 공기 섭취 열량보다 높은 제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인식되며 단백질 바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5일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에 대한 영양성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단백질 바의 열량은 제품 1개당 최저 136Kcal(제품중량 32g) ~ 279Kcal(제품중량 70g)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65%가 밥 한 공기 열량(215Kcal/150g기준)보다 높았다.

제품별로 '프로바 식물성 프로틴바 초콜릿 블리스' 1개 열량이 279Kcal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닥터유 프로 단백질 바' (274Kcal), '닥터유 단백질 바' (266Kcal), '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 (256Kcal), '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바 고소한맛' (254Kcal) 등 5개 제품이 250Kcal를 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제품마다 단백질, 포화지방산 함량 차이도 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은 최소 6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9%) ~ 최대 23g(1일 기준치 대비 41.8%)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조사대상 제품 1개당 포화지방산 함량도 최소 1.4g(1일 기준치 대비 9.3%) ~ 최대 5.4g(1일 기준치 대비 36%)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특히,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산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 이상이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백질 바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포화지방산은 혈중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급적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조사대상 제품 중 '하루단백바 카카오'의 경우 당류 함량 표시치가 실험치보다 허용오차범위(120%)를 초과한 203.8%로 나타나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13.9조 규모 해외 수출 상담회 개최

녹색산업 부문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주는 행사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25일 개막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GGHK) 2023'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발주처 40개사와 구매처 60개사를 비롯, 국내기업 180여개사가 참가한다.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에 제시한 사업 규모는 총 105억 달러(13조9500억원)에 달한다.

국내기업은 발주처 40곳과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日 에너지정책 회담, 6년 만 재개

에너지 소비 구조 유사 공통점 가져
탄소중립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논의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정책 회담이 6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정책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계기로 25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과 미나미 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정책 수석 국제탄소중립정책 통괄조정관이 '한-일 에너지정책 회담'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담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유사한 에너지 소비 구조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양국 간 에너지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 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6년 만에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재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시장 및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CFE) 활용 확대와 광물, 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무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 '고온극복 융합연구동' 준공식

고온·혹서기에 안정적 농작물 생산

고온·혹서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작물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연구, 지원하는 '고온극복 융합연구동'이 이달 말 문을 연다. 스마트팜 기술 개발의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30일 전북 완주군에 연구동이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준공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고온기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자 지난 2021년 '고온극복 융합연구동' 신축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에 2311㎡ 규모로 연구동을 구축했다.

연구동은 연구실, 실험실, 관제실, 세

미나실 등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온실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망을 활용해 작물별 로 빛(광),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재배환경을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다.

농진청이 고온극복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된 융합연구팀(TF)은 이곳에서 협업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실용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고온극복 융합연구동에서는 농가 규모의 온실에 환기, 안개 분무 등의 냉방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통해 냉방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채소, 과수, 화훼 작물에 알맞은 새로운 재배 유형을 개발하고, 지능형 농장 운영에 드는 비용과 장치 설치비 등 경제성을 종합해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차상근 기자 skc8472@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반려동물과 함께가도 OK... 호텔업계 '펫캉스'에 진심

한화리조트앤드호텔 제주·평창에 멍패커룸·멍패커런 등 선보여

소노인테리어셔널 레스토랑 등 시설 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휘닉스 제주 오마이펫키지 판매 35평·54평 객실에 반려견 비품

국내 유명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캉스 상품을 내놓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고객이 늘면서 맞춤형 부대시설을 늘리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반려견을 키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아지와 동반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은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행에 반려견을 동반하지 못한 이유는 '반려견 동반 가능 숙박시설의 부족' (55%), '동반 가능 음식점·카페 부족' (49.5%), '관광지 부족' (42.3%) 등이 있었다.

이에 최근 한화리조트앤드호텔은 제



한화리조트 평창 펫 그라운드에서 반려견들이 뛰놀고 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에 반려견과 함께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멍패커룸'과 야외 그라운드 '멍패커런'을 선보였다.

멍패커룸은 슬라이드와 전용 침대, 배변 패드, 털 제거 테이프, 친환경 전용 식기 및 타일 등을 갖췄다. 멍패커런은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120평의 야외 놀이터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으로만 꾸러졌다.

한화리조트 평창 또한 반려동물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소노인테리어셔널이 운영 중인 호텔·리조트의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은 오는 6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진다.

소노인테리어셔널은 전국 16곳 호텔&리조트 식음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위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고객과 반려동물이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물론 카페 및 베이커리 같은 제과점에도 동반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례승인에 따른 운영기간은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2년이다.

소노펫클럽앤리조트는 총 157실의 펫 동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견가족들까지 이용 가능한 넓은 객실도 갖췄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펫 토크 콘서트'를 연다. /파라다이스 호텔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리조트(휘닉스 제주)는 오마이펫키지를 7월13일까지 판매한다.

오마이펫키지 이용객들은 34평형의 로얄객실에 투숙하게 되며 해당 객실에는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다.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54평형 로얄 스위트 객실 이용도 가능하다.

단지 내 레드동 1층에 위치한 펫 객실은 발코니를 통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어 반려견과 동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객실로 꼽힌다.

또한 코지 레스토랑 조식뷔페 식사권, 올데이 라운지 이용권 등이 포함되

며 반려견을 위한 어메니티 4종 및 장난감, 간식, 펫톨티슈 등도 제공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한 곳도 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동반 액티비티를 즐기는 '펫밀리테이먼트(Pet+Family+Entertainment)' 수요 증가에 맞춰 올바른 펫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시리리 룸과 시리리 가든에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소형견과 반려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먼저 설채현 수의사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 방법,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됐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우선 조건으로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여행·숙박업계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컬리, 풀콜드체인 강화... 식료품 '싱싱배송'

100여개 맞춤포장... 배송시간 단축 내달부터 '여름맛이 대작전' 기획전 120여 가지 시즌상품 최대 40% ↓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높아진 온도를 고려해 풀콜드체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상품 배송에 나선다.

컬리는 서비스 초기부터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생산부터 입고, 분류, 배송 등 유통의 전 과정을 상품별 최적 온도로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계절을 6월기로 나눈 뒤 해당 절기의 기온, 습도, 냉매, 주문 구성, 박스 크기, 배송권역 등을 고려한 최적의 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현재 컬리의 맞춤형 포장법은 100여 가지에 달한다.

컬리는 최근 체감온도가 30도가 넘는 등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식품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식품 특성에 맞춰 아이스팩 투입량을 늘리고, 종이 파우치를 활용한 추가 포장 작업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케 했다. 온도 관리 검수를 늘려 상품 변질을 예방하고, 실시간 주문량에 맞춘 배송 차량 배치를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이른 무더위를 맞아 여름 별미 간편식과 과일, 간식, 생활용품 등을 한데 모은 '마켓컬리 여름맛이 대작전' 기획전을 진행한다. 25일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는 120여 가지 여름 관련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산메촌 메밀 물막국수, 하코야 냉메밀 소바, 울면 속초식 회냉면 뿐만 아니라,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려줄 장화당 쫄면,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 등 인기 간편식을 두루 준비했다. 함께 곁들이기 좋은 사리원 바삭 볶고기, 우오가시 민물 양념장어 등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열치열 음식을 찾는다면 프레시지 사천식 마라상귀를 비롯해 8도포차 매운 연탄돼지불고기, 울반 숙성 고추장 돼지불백을 추천한다. 상하목장 등 인기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참외, 수박과 같은 제철 여름 과일도 선보인다. 여름철에 쓰임새가 다양한 선풍기, 제습제, 모기퇴치제 등도 함께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LG화학, 에스테틱 최신 시술법 제시

미용성형 의료진 'A.B.C 심포지엄'

LG화학이 에스테틱 의료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최신 시술법을 제시, 미용성형 의료진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LG화학은 최근 경북 경주시 힐트호텔에서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명을 대상으로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LG화학은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 트렌드를 적기에 공유하기 위해 2014년

'A.B.C 심포지엄'을 처음 개최하고 올해까지 22회째 시술법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점탄성 및 응집력을 균형적으로 갖춘 HA(하일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와이솔루션', 인체 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과 로즈 줄기세포 엑소솜이 함유된 스킨부스터 'ASCE+ SRLV', 통증과 부종을 경감시키는 급속정밀냉각기 '타겟쿨' 등 LG화학이 판매하는 에스테틱 제품 기반의 효과적 시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롯데온 "캠핑 등 바캉스용품 준비하세요"

28일까지 관련용품 20% 할인

롯데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 수요 잡기에 나선다.

롯데온이 오는 28일까지 '여름 바캉스 준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휴가 준비를 위해 필요한 물놀이 및 캠핑 용품과 패션, 식품 등 바캉스 관련 다양한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고,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서 휴가 및 바캉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로 '네이버 데이터랩'이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보면 2022

년 6~7월에 래쉬가드, 아쿠아슈즈, 텐트, 타프, 파라솔 등에 바캉스 용품에 대한 검색량이 가파르게 늘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트렌드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며, 롯데온의 관련 상품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4월 롯데온의 '래쉬가드·수영복'과 '물놀이 용품' 매출은 전년 대비 각 2배 이상 늘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바캉스 수요가 몰렸으며,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 않았는데도 시즌과 상관없이 해외여행 및 실내 물놀이 등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이세경 기자

엔제리너스 스위 '튀밥' 빙수 등 출시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제리너스가 여름 시즌 대표 디저트 메뉴 빙수 2종을 출시했다.

엔제리너스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열풍이 불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어릴 적 즐겨 먹었던 튀밥을 활용한 이색 메뉴를 선보였다.

우유 얼음 위에 캐러멜을 코팅해 달콤 바삭한 튀밥을 가득 올리고 팥잼·누룽지 시럽을 더한 스위 '튀밥' 빙수와 열대과일 애플망고를 우유 얼음 위 가득 올리고 바삭한 코코넛 칩으로 식감을 더한 애플망고 빙수다.

/신원선 기자

유기농 우유 2배 농축 아이스크림 리뉴얼

매일유업, 상하목장 아이스크림 밀크·딸기맛 파인트·미니컵 출시

매일유업의 식품 브랜드 상하목장이 지난 4월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를 2배 농축해 만든 아이스크림을 리뉴얼 출시했다.

밀크, 딸기 2종으로 출시된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은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를 2배 농축해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용량 파인트 컵 474ml, 부담 없는 미니컵 100ml 두 가지 용량이다. 상하목장은 아이스크림본연

의 맛을 내기 위해서 유기농 우유를 2배 농축하고, 유지방 함량을 높였다. 474ml 밀크 파인트컵에는 상하목장 우유 200ml 2컵 이상이 아이스크림 한 통에 담겨 있는 셈이다.

밀크 아이스크림은 바닐라향 첨가 없이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우유 그대로를 듬뿍 담아 고소하고 진한 우유 아이스크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딸기 아이스크림은 국산 설향 딸기의 원물 함량을 높여(기존 대비 1.7배) 원물 본연의 맛과 산뜻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한국엔컴퍼니, 디지털 인재 육성 박차

카이스트와 미래기술 연구 협약

한국엔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는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과 디지털 미래혁신센터 3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이스트 디지털 미래혁신센터는 지난 2019년 한국엔컴퍼니와 디지털 기술 역량 확보를 목표로 건립한 산학협력 조직이다.

한국엔컴퍼니와 카이스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 및 우수 디지털 인



이동만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왼쪽)과 김성진 한국엔컴퍼니 디지털전략실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 육성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AI 기술 공동 개발 또한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건설-홀심, 저탄소 기술 개발 맞손

현대건설이 친환경 건설자재 전문기업 홀심(Holcim)과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에 위치한 홀심 본사에서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한 소성점도 활용 저탄소 신재료 개발 ▲해양환경 대응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저탄소 건설재료의 적용 확대에 힘을 쏟는다. /김대환 기자 kdh@

스타벅스, 자립준비청년에 지원증서 전달

스타벅스는 전날 스타벅스지원센터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김낙호 지원본부장, 아름다운재단 김아란 변화혁신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청년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 지원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2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스타벅스 커피 전문가의 특별 커피 강연을 통해 커피의 맛과 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외교부 ◇대사 △주니카라과대사 민재훈 △주네덜란드대사 최형찬 △주네팔대사 박태영 △주르완다대사 정우진 △주바레인대사 구현상 △주불가리아대사 배종인 △주벨기에유령연합대사 유정현 △주아세안대사 이장근 △주아일랜드대사 김용길 △주이집트대사 김용현 △주카자흐스탄대사 조태익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지규택
◆다음투자증권 ◇신규선임 △리테일금융센터장 전무 김종태

부음

▲김홍식씨 별세, 천대권(인카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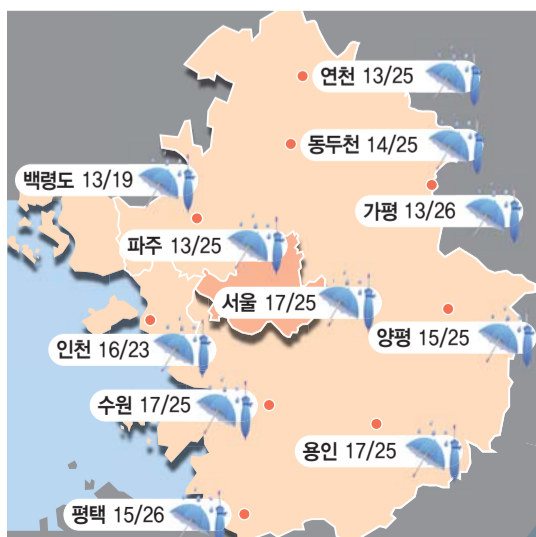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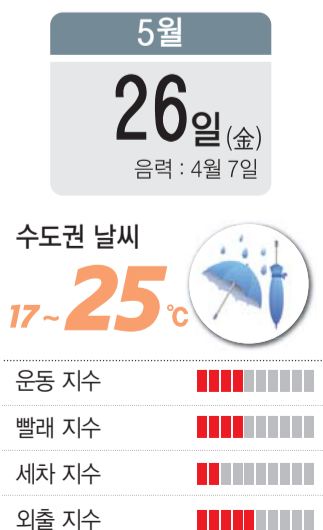
부회장) 빙부상, 강동성심병원 1호실, 발인 27일 오후 1시 30분, 장지 양평추모공원. 02-470-1692

▲배혜성씨 별세, 구중태(제16대 국회의원)씨 부인상, 구재욱·구혜원·구상욱(배재대 교수)씨 모친상, 최수형씨 시모상=25일 0시 2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30분. 02-2258-5940

▲강윤량씨 별세, 강남화(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강연경(양천구청)·강동수(자영업)·강정화(미국 거주)씨 부친상, 박종철(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전 한화투자증권 상무)·이중복(종로구청)씨 장인상, 선정씨 시부상=25일 오전 7시 23분, 서울성모병원 5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15분. 02-2258-5979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6 | 해질 / 19:4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삼성 '지속 가능한 일상' 기술·제품 소개 LG '넷제로 하우스' 테마 전시공간 마련

지속가능한 미래 향한 비전 소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도

삼성과 LG가 부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노력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에도 힘을 보탠다.

삼성과 LG는 오는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WCE2023은 전세계 기후 산업 분야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는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된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함께 삼성홍보관을 열었다. '지속 가능한 일상'을 주제로 ▲에너지 가치를 높이는 제품 ▲기술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배터리 기술을 소개한다. 삼성은 부산을 지난 4월 '2023 월드IT쇼'에서 사용했던 재활용 나무 합판 등 구조물을 재사용하고 폐섬유 패널과 폐플라스틱 판재를 마감 자재로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꾸몄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키오스크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삼성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홍보관



LG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부스

노력을 소개하고, 가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상을 실천하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전시했다. 에어컨과 세탁기 등 주요 제품 에너지 절약 기술과 에코패키지를 활용한 리사이클링 활동 등 미래를 생각하는 삼성전자 기술 철학을 확인한다.

삼성SDI는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배터리 기술을 선보인다. 영상 콘텐츠를 통해 ▲배터리의 친환경 스토리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기후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활동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배터리 제조를 넘어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 등의 탄소저감 활동을 통한 삼성SDI의 미래 환경개선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LG는 지주사와 LG전자, LG화

학과 에너지솔루션 등 계열사와 함께 450㎡ 규모 통합 부스를 마련했다.

LG전자는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넷제로(Net Zero) 하우스'를 테마로 전시공간을 꾸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가전, LG 씽큐(LG ThinQ) 기반의 에너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해 지속가능한 삶을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았다.

LG전자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은 "제품이 생산돼 폐기되기까지의 전 여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 선보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공개

수소연료전지 신기술 등 전시 기후위기 대응 비전 공유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 세계박람회 후보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기후·에너지 분야 국제 박람회인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연료전지 신기술을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벡스코 1전시관 내 미래모빌리티관에 전시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828m²에 달하는 대형 전시관을 마련하고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을 비롯해 ▲수소전기트럭 살수차 ▲수소연료전지 멀티콥터 드론 ▲수소연료전지 기반 '엠비전 투고(M.Vision 2GO)' ▲수소 기반 탄소중립 제철 공정 모형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수소전기트랩 모형 등 그룹의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및 수소연료전지 신기술을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에너지분야 글로벌 기업과 기관,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솔루션을 전시함으로써 2030년 탄소중립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부산과 한국 기업들의 엑스포 개최 역량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 19개 계열사 참여... "넷제로 시티 부산" 구현

탄소중립 실현 위한 미래 사업 소개

롯데가 '넷제로 시티 부산'의 미래를 미리 선보인다. 오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역량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롯데가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함께 '넷제로 시티 부산'의 미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WCE는 ▲탄소중립관 ▲청정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미래 모빌



리티관 등으로 꾸며진다. 롯데는 WCE '탄소중립관' 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호

텔롯데, 롯데건설 등 19개사가 참여한 '롯데그룹'을 운영한다. '롯데그룹'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포집, 에너지 효율개선, 수소에너지, 연료 전환, 무공해차 전환 등 롯데의 6대 핵심 탄소저감활동 바탕,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넷제로 시티 부산'의 모습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롯데그룹'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롯데 계열사의 미래 사업을 만나볼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신제품 출시!



포켓몬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강력한 맥세이프 자성! 슬림하고! 가볍다!
최대 20W 유·무선 고속 충전!

포켓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귀여운 피카츄 얼굴을 그대로 담은 마우스패드로
나만의 PC공간을 밝고 귀엽게 꾸며보세요!



상품문의 | 게임피아(주) 공식 온라인몰 : www.sofrano.com & TEL : 031-447-8858

※해당 제품은 한국 내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 독점적 저작권 관리자인 (주)포켓몬코리아와의 정식 계약에 의해 생산되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만 판매 가능.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은 Nintendo의 상표입니다.



와이너리에서 휴가를... 세계 와인도시로 떠나볼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197

GWC 세계 와인 수도 12곳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진 3년 6개월 동안 계획하고, 또 계획했던 것이 있다. 바로 와이너리로의 휴가다. 와이너리라고 해서 농장같은 곳에서 와인만 맛보다 오겠거니 하면 오해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역사와 경관을 자랑하는 곳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현대 건축물, 준비한 맛집과 아이들까지 반겨주는 패밀리 투어를 운영하는 곳까지 가족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여행이 바로 와이너리다. 올해 여름 휴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이만한 곳이 또 없다.

글로벌 와인 네트워크인 그레이트와인캐피탈(GWC)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와인 수도를 선정했다. 현재 12곳이 있는데 그 지역의 와인 산업은 당연하고, 역사와 관광, 와인 교육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도시들이다.

먼저 유럽이다.



프랑스 보르도의 한 와이너리 전경. /GWC

중주국 프랑스야 뭐 두말 할 나위없이 보르도다. 소위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은 뒤늦게 와인 양조에 뛰어든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니 말이다. 보르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들로 가는 관문인 동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큰 AOC(원산지 통제 명칭) 지역이기도 하다.

보르도하면 목직인 레드와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으로 만든 화이트와인에 바로 마시기 좋

은 가벼운 레드와인, 스파클링 와인, 디저트 와인 등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이탈리아의 와인 수도로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베로나가 꼽혔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로맨틱한 도시다. 아마 로네와 발폴리첼라, 소아베, 레치오토 등이 이탈리아 와인만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스페인 리오하를 즐길 수 있는 빌바오, 포르투갈은 포르투, 독일은 마인츠, 스위스는 로잔 등이 선정됐다.

미국은 수백개의 와이너리가 위치한 나파밸리다. 다양한 토양에 기후, 지형까지와 인 양조로 보면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다. 각각 고유한 스타일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 어딜 가야할 지 고민을 안겨주는 곳이다. 나파 스타일을 널리 알린 카버네 소비뇽과 샤르도네가 유명하지만 알바리뇨에서 진판델까지 30여종 이상의 다양한 품종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세계 국가 가운데서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카사블랑카밸리와 멘도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케이프타운이 와인 수도로 꼽혔다.

남호주는 애들레이드가 대표 주자다. 남호주는 호주 전체 와인의 50%가 생산되고, 고급 와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80%를 담당하는 곳이다. 애들레이드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이내에 위치한 와이너리만 무려 200개다. 전 세계 포도밭을 황폐화시켰던 해충 필록세라를 피해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를 만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에 목록에 이름을 올린 곳은 뉴질랜드 흑스베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흑스베이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

/smahnl@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자동화 격랑 속 주체가 되는 법

요 며칠 취재차 '거지방'에 잠복했다. 거지방은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 절약할 방법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특방 공지 내용에 따르면, 지출 내역에 대해 소통하고 반성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지들을 위해 꿀팁을 방출하고자 개설한 방이라고 한다. 수천개의 특이 오고 갔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 챗봇이 알려준 '거지를 벗어나는 법'이었다.

AI 챗봇은 ▲'일 자리를 찾으세요' ▲'예산을 세우세요' ▲'빚을 갚으세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세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으세요'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라는 답을 내놨다. 메시지 발신자는 네XX온에 챗GPT랑 대화하는 기능이 생겨 물어본 결과라고 부연했다. AI 챗봇은 "거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는 따뜻한 말도 잊지 않았다.

챗GPT는 거지말을 잘한다는 편견은 산산조각이 나고, 약간 두려워졌다. AI가 내놓은 해결책이 웬만한 사람들의 조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마인드 마이너'(마음을 깨는 사람)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이 쓴 책 '그냥 하지 말라'에는 자동화의 격랑 속에서 생산의 주체에서 밀려나지 않을 방법이 제시돼 있다.

저자는 "우리의 이슈는 대체 가능하지 않은



그냥 하지 말라

송길영 지음/북스톤

상태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인간은 기술과 기업을 습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리지널리티, 저작권을 가진 창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리지널리티 없이 기술을 체득하면 기술이 자동화되기 시작했을 때 나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창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숙련은 의미가 없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저자는 "진정성(authenticity)의 어원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를 업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주체성과 전문성이라는 두가지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즉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갖춘 순간 우리는 신뢰를 얻는다. 일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284쪽, 1만7000 /김현정 기자 hjk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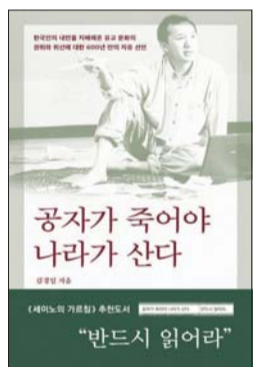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경일 지음/바다출판사

새로운 정치권력은 송고한 도덕의 깃발을 흔들며 등장한다. '잘살아보세', '정의사회구현', '보통사람', '역사 바로세우기', '제2의 건국', '공정과 상식' 등 나부끼는 깃발에 붙은 표어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등 중요치 않다. 문제는 깃발 아래 초법적인 힘을 행사하고 사회

운용의 기본적인 틀을 파괴하는 권력자들이다. 이들이 내거는 구호는 한결같다. "한국인은 위대한 민족,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유교 문화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경술국치, 6·25, IMF 같은 붕괴의 악순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책은 지적한다.

384쪽,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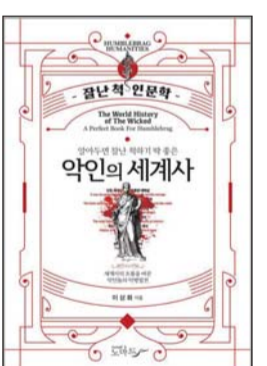
악인의 세계사

이상화 지음/Nomad(노마드)

악인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까. '악의 평범성'은 미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말이다. 나치 전범이자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한 한나 아렌트는 놀란다. 전범재판소에서 나온 아돌프 아이히만은 냉혹한 악마

가 아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악마가 됐을까. 악이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고, 이를 포기한 순간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378쪽, 2만2800원.



퇴고의 힘

맷 벨 지음/김민수 옮김/윌북(willbook)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모든 초고는 쓰레기"라고 했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썼다고 하더라도 퇴고를 거치지 않은 글은 '작품'이 아닌 '원고'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퇴고가 필요하다. '퇴고의 힘'은 망작을 명작으로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문단이나 문장 단위로 '다듬는' 수정이 아닌 장면과

장 단위로 과감히 '뜯어고치는' 퇴고 과정만이 작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설 속 인물의 대화를 군데군데 삭제하기보다는 나눈 말들의 유형을 파악해 장면과 어울리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낫고, 의미 없는 장소들을 나열하지 말고 하나의 공간만 남겨두라고 책은 조언한다.

192쪽, 1만4800원.



▲대만 美서 최신 F-16V 도입 지연... "SW 개발 난제"
▲오스트리아 히틀러 생가, 경찰 인권교육센터로 변신 /사진 뉴스스

▲일본 정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고교생 자녀로 확대
▲"자위대 함정 육일기 달고 부산항 입항 조율" 日 언론



▲하반신마비 장애인, 뇌-척수 무선 디지털 연결로 다시 걸어 /사진 뉴스스
▲美연준 추가 긴축 불확실... "선택 여지 남겨야"



단지 내 조경(왼쪽)과 조형물(오른쪽 위), 로스트벨리.



창밖으로 펼쳐진 시화호... 여유·동심 담은 명품조경은 덤

아파트의 미학(美學)

호반씨밋 더 프라임

최근 찾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호반씨밋 더프라임'.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약 2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시화나래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해양관광레저 복합 시설인 '웨이브파크'와 '시화나래 둘레길'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호반씨밋 더프라임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826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A 204가구 ▲59㎡B 197가구 ▲74㎡ 213가구 ▲84㎡ 212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호반'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입주주민을 위해 전 세대에



단지 내 수변공간.

도보권에 초·중 통합 '시화나래 초중학교' 인근에 웨이브파크·시화나래 둘레길 자리 최고 29층 8개동, 총 826세대 규모 조성 전세대 4베이, 시화호 오션뷰 조망 누려

단지내 커뮤니티마당·로스트벨리 조성 산책로·티하우스 마련, 휴게공간 제공

4베이(Bay)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했다. 오션뷰 조망특권(일부 세대 제외)을 통해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화호의 경관을 느낄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씨밋 더프라임은 호반씨밋 더퍼스트 오션의 후속 단지로 알려져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면서 "단지 인근에 시화 스마트허브, 안산 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점도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입주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됐다. 지하 주차 설계로 보행 동선을 분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든 것. 단지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도 있었다.

단지에는 '호반씨밋 더프라임'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푸른 자연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마당'이 조성돼 있었다. 문어를 테마로 한 대형 놀이터 '로스트벨리'가 설치돼 웅장한 느낌을 선사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담소와 휴식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티하우스 등이 마련돼 입주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변공간이 조성돼 입주주민에게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수변 공간 인근에는 화려한 색채로 구성된 곰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단지 지하에는 입주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주민카페,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웃을 수 있게 고래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됐다. 어르신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경로당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 내 테마놀이터(왼쪽)와 티하우스.



반려동물도 OK
호텔업계
펫캣스 상품 선택
니



Life

삼성, LG
WCE 2023서
지속가능한 미래 소개
L2



피부진정·수분충전까지

홍당무 피부엔 당근이지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수 년의 시간을 지나고도 슬로건과 콘셉트를 꾸준히 잇는 데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에는 멋드러진 슬로건이었어도 어느샌가 촌스러운 구닥다리 슬로건으로 매도 당하기도 한다. 2004년 처음 등장한 스킨푸드 의 슬로건은 회사가 처음 문을 연 때로부터 이어졌다. 셀 수 없이 많은 패러디들은 성공한 슬로건의 위력을 보여준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슬로건의 저력은 어디서 왔을까? 스킨푸드의 수많은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당근, 슈가, 해조, 생과일 등 먹을거리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수많은 상품들이 슬로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 중 특히 최근 눈길을 끄는 제품이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이든바 ‘당근패드’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먹을거리서 모티브... 20년간 슬로건 이어와 편리하게 고민 부위 집중 관리하는 ‘토너패드’ 제주 유기농 무농약 당근, 찜추출법으로 담아 순한성분에 진정기능까지... 예민한 피부 맞춤형 두툼한 두께에 보드라운 와플 순면패드도 강점

당근패드는 토너를 가득 머금은 작은 패드로 간편하게 원하는 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토너패드’ 제품이다. 얼굴 전체를 덮는 팩을 할 때면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지만 아무리 커도 손바닥 만한 작은 제품인 탓에 편리하고 활용 방안도 다양하다. 2020년대 들어 토너패드가 보편화 하면서 경쟁이 여느 때 보다 치열하지만, 당근패드는 그 사이를 뚫고 당당하게 추천 제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당근패드는 ‘2022 올리브영 어워즈’ 패드 부문과 ‘2022 화해 뷰티 어워드’ 부분마스크·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올리브영, 화해, 글로픽 어워즈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뷰티어워즈에서 누적 수상 실적은 18관왕에 달한다. 2020년 6월 출시한 후 2년 만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이미 150만 개 이상 판매고를 돌파했다. 연속 1위를 차지한 올리브영에서는 이번해 1월 기준 누적 후기가 13만 개를 넘겼다.



당근패드의 흥행 후 스킨푸드는 당근라인으로 불리는 ‘캐롯 카로틴’ 라인을 새롭게 출시했다. /스킨푸드

고객들이 꼽는 당근패드 선택 이유는 예민한 피부에도 쓰기 좋은 순한 성분과 확실한 진정 기능에 있다. 당근패드를 사용한 후기를 남기는 고객과 인플루언서들의 평가에서는 유독 ‘예민한 피부’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올리브영의 탐리뷰

어 ‘물고기원숭이’는 리뷰에서 “예민피부로서 패드는 아무거나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데일리로 사용하면서도 자극없이 사용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원 힐라리아점은 “더위를 정말 많이 타고 땀이 많아서 여름철에는 볼이 정말 뜨거운데 패드 올리면 금방 가라 앉는다”며 “두껍고 수분 듬뿍이라 정말 좋다”고 평가했다.

당근패드는 이름 그대로 제주에서 유기농산물 인증 받은 무농약 당근을 담았다. 스킨푸드에 따르면 당근찜추출법을 통해 얻은 순수한 당근 추출물을 쓴다. 당근찜추출법은 채소의 영양소를 보존하는 조리법 중 하나인 ‘찜’의 원리를 적용한 추출법으로 화학적 용매 없이 자연 요법을 사용한다. 건강하게 얻은 당근씨 오일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성분은 즉각적인 피부 진정 효과 뿐 아니라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 민감성패널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영국과 한국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다. 유독 ‘예민한 피부’를 가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분 뿐 아니라 토너패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패드도 당근패드의 자랑이다. 피부 마찰을 고려한 와플형 순면 패드로 두툼한 두께와 보드라운 감촉이 특징이다. 워낙 두툼해 패드 한 장을 두 장으로 나눠 써도 좋다.

지난해 7월 스킨푸드는 9년 만에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때 로드숍 화장품의 대표 주자 중 하나였던 스킨푸드는 2018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뼈아픈 과거가 있다.

2012년까지 연매출 2000억원에 150억원 안팎의 이익을 냈지만 중국 등 해외 진출에서 실패했고, 온라인 유통채널 확장이 늦어지며 위기에 처했다. 가맹점 제품 공급 차질도 한동안 심각한 문제였다. 결국 2019년 경영악화로 고전하며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 (PEF)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이때 세운 전략 중 하나가 공격적인 출점이나 마케팅이 아닌 신제품 출시와 인기 제품의 리뉴얼을 통한 브랜드 재건이었다. 당근패드는 이러한 전략이 서고 1년 여가 지나 등장했다. 2년 여가 지난 후에는 마침내 9년 만의 흑자 전환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 스킨푸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 162억 9500만원에 영업이익률 13.5%를 기록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판매와 마케팅 채널, 매체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한 것이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하성, 시즌 5호 홈런 작렬...빅리그 통산 100득점
▲셀틱 오현규, 시즌 5호골...팀은 2-4 패배 /사진 뉴시스

▲프로농구 FA 자율협상 미체결 전원, 영입 제한 못 받아
▲올버햄튼, 황희찬 인터뷰 게재...“다음 시즌 순위 올려야”



▲지원군 속속 돌아온다...KIA, 6월까지 '버티기'
▲배지환의 반성...“스피드 사용할 때를 아는 게 숙제” /사진 뉴시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